

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개최

✎ 김영동 기자 | ☎ 승인 2024.06.27 15:55

수질환경보전회 운영 방향, 수질개선 역할 분담 등 논의
지자체, 지역주민과 더 튼실한 협력체계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지난 6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문경=환경일보] 김영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는 지난 6월 26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질환경 보존회는 공사의 주도로 문경시 의회, 시청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협의체를 꾸려 나가고 있다. 이 협의체는 농업용수 수질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일에 정기적인 모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공사와 서로 소통하며 수질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안영용 지사장을 비롯해 남기호 문경시의회의원, 환경보호과 담당,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 김강엽 회장, 문경환경항공감시단 임학환 단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의 수질에 관한 설명에 이어 수질환경보전회 운영 방향 과 수질개선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영용 문경지사장은 "수질환경보전회를 통해 수질오염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와 함께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kyd7888@hkbs.co.kr